

(1) 제작기법과 기형

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의 전통적인 옹기 성형방법은 '채바퀴 타렴질'이다. 채바퀴 타렴질은 일명 '판장질'이라고 부르는데, 그 방법은 점토를 땅바닥에 좌우로 쳐가면서 넓다란 판장을 만들어 그 판장으로 하나의 기물을 완성하는 기법이다. 이 방법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옹기 성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.

기형 곧 옹기 모양은 지역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. 순천의 옹기는 비교적 높은 기후와 대부분이 농촌마을인 전남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형이 만들어져 있다. 그래서 많은 음식을 최대한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, 전은 좁으나 어깨는 넓고 다시 굽이 좁아지는 시원스런 형태가 주로 나타난다. 전은 옹기의 입부분이고, 굽은 밑부분이다. 굽이 좁은 것은 땅 속에 묻어서 사용하기에 편하며, 어깨가 넓은 것은 많은 양을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, 전이 좁은 것은 충분한 일조량이 있기 때문이다.